

광주·전남 로컬푸드매장 평균 매출 20억 감소

국고지원 직매장 19곳 평균 매출 31억7800만원 39.2% ↓
지난해 총 매출 22.9% 감소에도 운영비 절감에 흑자 영업
여수농협 등 지역농산물 취급비중 50% 미만...관리당국 적발

전국적인 '로컬푸드' (지역 직거래 농산물) 열풍 속에서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원 직매장 평균 매출은 20억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여수농협 등이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이 절반도 넘지 않아 관리당국에 적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 (2016~2020년) 자료에 담겼다.
지난 한 해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 19곳의 평균 매출은 31억7800만원으로, 1년 전 평균 매출(52억2300만원) 보다 39.2%(-20억46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 매장 평균 매출 감소율인 13.7% 보다 큰 수치였다.
총 매출 역시 2018년 783억4900만원에서 이듬해 603억7500만원으로 180억원(-22.9%) 가량 급감했다.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원 매장이 지난

2018년 15곳에서 지난해 4곳 늘어난 19곳이었지만 총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
총 매출은 줄어든 반면 지난해 2018년 적자였던 광주·전남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지난해 흑자 영업을 했다.
매출은 줄었지만 운영비가 절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매장의 순이익은 2018년(15곳) 24억6400만원 적자를 냈지만, 이듬해(19곳) 16억5000만원 흑자를 냈다.
지난해 19개 매장 총 운영비는 45억7200만원으로, 전년(68억200만원) 보다 22억3000만원(-32.8%) 비용을 줄였다.
매장 1곳당 평균 운영비도 4억53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47%)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5곳 가운데 적자를 낸 곳은 영암 삼호농협(-10억2700만), 화순도곡농협(-4억7200만), 광주 평동농협(-3억3000만), 광양원예농협(-3억1700만) 등 9곳이었다.
지난해 19곳 가운데 '마이너스' 순이익을 기록한 곳은 담양 수북농협(-1억1500

■ 광주·전남 국고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경영실태 (단위:개·원)

연도	매장 수	총 매출	평균 매출	평균 운영비	평균 순이익
2016	11	235억	21억		
2017	14	334억	24억		
2018	15	783억	52억	4억5300만	△1억6400만
2019	19	604억	32억	2억4000만	8400만
2020 1~5월	19	323억	17억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맹성규 의원실)
만원)과 강진농협(-3600만원) 등 2곳이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 2016년 21억3900만원에서 23억8400만원(2017년), 52억2300만원(2018년)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31억7800만원으로 꺾였다.
올해 들어 1~5월 19개 매장의 총 매출은 322억99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매출액의 53.5%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매장당 평균 매출은 1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장별 매출액은 여수농협 1호점이 51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성 남면농협(50억900만), 도곡(30억2500만), 여천(27억100만), 수북농협(23억9300만),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22억100만), 일로농협(20억5700만), 광양원예농협(19억4300만),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순천만국가정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03.73 (+11.77) ↑ 금리(국고채 3년) 0.925 (+0.018)
- ↑ 코스닥 873.50 (+1.88) ↓ 환율(USD) 1146.80 (-6.50)

광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여전히 먹구름'

RBSI 78...5분기 연속 부진
고용전망 102→88로 하락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유통업계 경기전망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65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올 4분기 경기전망은 78로 나타나면서 5분기 연속 부진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로 내수 부진과 함께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영향목별 분석 결과 매출전망은 82에서 79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수익전망은 82에서 85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비용전망은 83에서 86으로 매출·수익이 부진함에 따라 관리비, 마케팅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전분기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용전망은 3분기 102에서 4분기 88로 급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등이 이어지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가 유통업 규제 강화와 비대면 구매 선호 등 현상으로 82에서 55로 크게 떨어졌고, 편의점(94→75) 및 슈퍼마켓(67→61)도 코로나19에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업황 부진이 예상됐다.
다만 백화점(75→125)은 비대면 명절에 따른 고가 선물세트 판매와 연말 겨울의류 구매 증가 등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함에 따라 유일하게 호전을 예상했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산업 침체가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때까지'(64.6%)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올해 중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 업체는 1.5%에 불과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절감'(41.5%)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3.8%는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유통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제 감면'(32.3%), '긴급 경영안정 자금'(32.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안정 자금'(24.6%), '2차 재난지원금 배포'(23.1%), '규제 완화'(20.0%), '대출 및 정부 지원금 상환 연기'(7.7%)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 지자체와 코로나19 극복 머리 맞댄다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 개최
남도장터·노란우산 상생협약도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전남지역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남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 중소기업계와 전남도가 협력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역 중소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과 지역 중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협동

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중기제품 구매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역제한입찰 확대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기문 회장은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전략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복지플러스'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2주년 '프라임 PB센터'

광주은행 VIP 고객에 호평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은행 프라임 PB(Private Banking)센터가 이달 개점 2주년을 맞았다고 12일 밝혔다.
프라임 PB센터는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VIP고객에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동구 대인동 본점에 개설했다.
이곳은 개인고객 214명, 법인고객 63곳 총 277명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고객별 맞춤상담과 체계적인 자산관리·진단으로 고객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게 광주은행 측 설명이다. 시중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도 광주은행 금융서비스를 본보기 삼고 있다.
금융상담 전문가인 전담 PB 직원과 부동산·세무·회계·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으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운용 및 투자, 상속·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양도세 등의 절세 방안도 얻을 수 있다.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B상담실 60여 개도 운영되고 있다.



니트로 기를 느낌 '물씬' (주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7층 클럽모나코 매장에서 캐시미어 100% 소재 니트 상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 매장은 연말까지 35% 할인 행사를 벌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